

---

# 2016년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 참가결과 보고

---

The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2016  
(2016. 10.24.~28., OECD, CC4/CC12)

2016. 11.



경 제 통 계 국  
소 득 통 계 과

# 차 례

I. 출장개요 .....	1
II. OECD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 .....	1
1. 회의개요 .....	1
2. 2016년 회의주제 및 일정 .....	2
III. 주요 주제별 회의내용 .....	3
1.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WPFS) .....	3
□ 국민대차대조표 및 금융통계 관련 작성	
□ G-20 Data Gaps Initiative	
2.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 .....	7
□ 국민계정과 금융통계 간 정합성	
□ 미거시 통계 간의 연계	
□ 통계단위,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	
□ 측정관련 이슈 등	
3.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WPNA) .....	13
□ 최근의 아일랜드 국민계정	
□ 디지털 경제	
□ 국민계정의 재설계 등	

## < 부 록 > 참고자료

1. 회의주제 및 일정 (Draft Agenda)
2. 발표 논문초록 (Annotated Agenda)
3. 발표 논문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4. 참가자 명단 (List of Participants)

## I. 출장개요

- (출장자) 소득통계과 홍현정
- (출장기간) 2016. 10. 23.(일) ~ 30.(일)
- (출장목적) OECD 국민계정작업반 회의 참가
  - \*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WPNA): SNA 관련 현안, 최근 연구성과 및 각국의 실무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
- (출장지역) 프랑스 파리

## II. OECD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

### 1. 회의개요

- (목적) SNA 관련 최근의 현안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지역소득통계 및 국가자산통계의 개선 및 개발작업에 환류
  - \*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경험을 계기로 금융 및 실물부문의 통합적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10년부터 금융통계 작업반(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 WPFS)과 공동 개최
- (주관) OECD 통계국 (OECD/STD)
  - \* 의장: Peter van den Ven (OECD 통계국)
- (기간 및 장소) 2016. 10. 24.(월) ~ 28.(금), OECD 본부 회의센터 (CC10)
  - \* (회의진행) 10. 24. - 10. 25.: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WPFS)  
10. 25. - 10. 27.: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WPFS+WPNA)  
10. 27. - 10. 28.: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WPNA)
- (참가자) 각국 국민계정 전문가 및 실무자, OECD, Eurostat, ECB 및 UNECE 등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참석
  - \* 한국: 통계청과 한국은행 [김영태 국민계정부장(단장), 김현정 국민계정연구반장, 김용현 자금순환팀 과장, 신동주 국민소득총괄팀 조사역 및 김태정 주OECD 대표부 주재관] 관계자 6명 참가
- (기대효과) 국민계정 관련 최근의 연구성과 및 각국의 경험을 흡수하여 향후 지역계정 및 국가자산통계의 개선·개발작업 환류 및 추가 이행작업의 기본방향 설정

## 2. 회의주제 및 일정

### □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WPFS): 10.24.(9:00) - 10.25.(12:30), CC4

주 제	주 요 내 용	발 표
1. 국민대차대조표 및 자금순환통계 작성의 필요성	■ 국민대차대조표 개발의 필요성	IMF
	■ 자금순환통계 이용자 관심사항	일본
	■ 가계부문의 실질 수익률 분석 결과	독일
	■ 미국의 투자펀드 특징	미국
2. G-20 DGI	■ 2단계 사업의 목표와 실행계획	IMF
	■ 자료수집 및 향후 계획	OECD
	■ 상세 자금순환통계 개발 및 향후 계획	영국

### □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 10.25.(14:00) - 10.27.(15:40), CC12

주 제	주 요 내 용	발 표
1. 거시통계 정합성 관련 논제	■ 국민계정과 국제수지 편제를 위한 통합처리방법	영국
	■ 국민계정과 국제수지 통계의 정합성	Eurostat
	■ 유럽의 제도부문계정과 국제수지 간 정합성	ECB
2. 미시 및 거시통계 연계성	■ 가계의 소득분배지표 편제시 미시-거시 차이 처리방법	ECB
	■ 네덜란드의 부(wealth)와 배분	네덜란드
	■ 덴마크의 미시 거시 자료	덴마크
	■ 유럽의 가계부문 조사자료와 금융계정 연계	ECB
	■ 기업체 자료를 이용한 미시-거시 연계	OECD
	■ 무역자료와 기업체통계의 연계	OECD
3. 통계단위	■ 현 통계단위의 검토	OECD
	■ 통계단위	캐나다
	■ 법적단위에서 기업체로 유럽의 경제통계 구조 전환	Eurostat
4. 정보전달	■ 멕시코의 국민계정 통계 정보전달 방식 개선	멕시코
	■ 한국의 국민계정 보도와 대응	한국
	■ 물가통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달방식의 사례연구	영국
	■ 통계의 관심 제고를 위한 정보전달방식 변화	OECD
5. 행정자료와 빅데이터 사용	■ 국민계정 변화를 위한 행정자료 사용	노르웨이
	■ 핀란드의 국민계정 편제시 2차 자료원 사용 사례	핀란드
	■ 행정자료 사용의 극대화로 기업체통계 개선효과	뉴질랜드
	■ 칠레의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세제정보 사용	칠레
	■ 국민계정 관광업 편제시 빅데이터의 사용사례	멕시코
6. 측정이슈	■ 인도네시아의 금융서비스 추계시 FISIM 이행현황	인도네시아
	■ 단일환가 방식의 문제점	IMF
	■ 콜롬비아의 국민계정 개선사례	콜롬비아
	■ 한국의 분기별 소득계정 개발	한국

□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WPNA): 10.27.(16:10) – 10.28.(17:00), CC12

주 제	주 요 내 용	발표/사회
1. 글로벌 생산	■ 체코의 서비스 수출입 추계	체코
	■ 아일랜드의 2015년 국민계정 결과	아일랜드
2. 디지털 혁명	■ 디지털화 경제에 따른 GDP 측정	OECD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캐나다
	■ 디지털 경제의 규모	뉴질랜드
	■ 디지털경제 측정의 도전과제	미국
	■ E-플랫폼의 개념과 측정이슈	Eurostat
3. 패널토론	■ 디지털 경제: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	OECD
4. 국민계정 재설계	■ 네덜란드의 국민계정 작성 변화 방향	네덜란드
	■ 영국의 국민계정 작성 재설계 방향	영국
	■ 남아공의 GDP 편제 통합과정의 교훈	남아공
	■ 국민계정 자동조정(automatic balancing) 방법	스웨덴
5. 정보공유	토지와 기타 비금융자산의 T/F 활동	OECD
	연간 PPP 작업 갱신	OECD

### III. 주요 의제별 회의내용

#### 1.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WPFS)

□ (논의배경) 국민대차대조표 및 자금순환통계 작성 필요성, 금융통계를 이용한 분석결과, G-20 DGI\* 관련 데이터 제출 등에 대해 토론 발표

\* G-20 DGI(Data Gaps Initiative): IMF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G-20 대상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통계데이터 생산 및 국가별 비교성 제고 노력 중

□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필요성)

○ (IMF) IMF 대표는 시스템리스크로 발생한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국가별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발의 필요성 제시

- 시스템리스크에 따른 금융위기는 거시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거시금융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수치적인 분석 체계(quantitative framework) 부재

- SNA 체계에 따른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발은 경제부문별 자산 및 부채의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과거 금융위기의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금융위기 유발요인들이 축적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표로 활용 가능

- 각국 참석자들은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발이 필요함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통계에 반영할 다양한 금융위기 유발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 (독일) 가계부문이 보유한 금융 포트폴리오의 실질 수익률을 상세자금 순환표 및 금융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대하여 발표

- 가계부문의 금융자산은 예금, 채권, 주식 등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익, 배당수익, 평가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에 발생
- 가계부문의 실질수익률은 금리하락으로 채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 및 연금수령, 투자펀드지분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전 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나타냄

○ (미국) 미국의 투자펀드의 특징 등에 대하여 발표

- 미국은 2008SNA에 따라 투자펀드를 MMF, Non-MMF\*로 분류하고 있으며, Non-MMF 중 헷지펀드 및 PEF는 자료의 부족으로 편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뮤추얼펀드,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s), ETF(exchange-traded funds), 부동산펀드(REIT), 헷지펀드 및 PEF(private equity funds)

- 1990년대 이후, 경기 호황에 따른 수익률 제고, 연금체계 변화, 펀드시장의 경쟁에 따른 수수료 감소 등에 따라 투자펀드 시장이 크게 성장

□ (G-20 DGI) IMF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단계사업이 발효됨

○ (IMF) G-20 DGI 2단계 사업의 목표와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하여 발표

- 2009-2015년 중 진행되었던 DGI 1단계 사업은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 9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2단계 사업이 발효
- 각 권고사항별로 핵심목표, 추가이행목표로 분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그림 1] DGI 1단계 및 2단계 사업

DGI-I Recommendations	DGI-II Recommendations
<b>I.1: Mandate</b>	<b>II.1: Mandate</b>
<b>Build-up of risk in the financial sector</b>	<b>Monitoring risks in the financial sector</b>
<b>I.2: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FSI)</b> ●	<b>II.2: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FSI)*</b>
<b>I.3: Tail risk</b> ●	<b>II.3: FSI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 Measures (CDM)</b>
<b>I.4: Aggregate Leverage and Maturity Mismatches</b> ●	<b>II.4: Data for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SIFIs)</b>
<b>I.5: Credit Default Swaps (CDS)</b> ●	<b>II.5: Shadow Banking</b>
<b>I.6: Structured Products</b> ●	<b>II.6: Derivatives</b>
<b>I.7: Securities data</b> ●	<b>II.7: Securities Statistics*</b>
<b>Cross-border financial linkages</b>	<b>Vulnerabilities, Interconnections, and Spillovers</b>
<b>I.8&amp;I.9: Data for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SIFIs)</b> ●	<b>II.8: Sectoral accounts*</b>
<b>I.10&amp;I.11: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 ● and International Banking Statistics (IBS) Participation ● &amp; Enhancement ●</b>	<b>II.9: Household Distributional Information</b>
<b>I.12: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 ●</b>	<b>II.10: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b>
<b>I.13&amp;I.14: Financial and Non-financial corporations' cross border exposures</b> ●	<b>II.11: International Banking Statistics (IBS)*</b>
<b>Vulnerability of domestic economies to shocks</b>	<b>II.12: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b>
<b>I.15: Sectoral accounts</b> ●	<b>II.13: Coordinated Direct Investment Survey (CDIS)</b>
<b>I.16: Distributional Information</b> ●	<b>II.14: Cross border exposures of non-bank corporations</b>
<b>I.17: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b> ●	<b>II.15: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b>
<b>I.18: Public Sector Debt</b> ●	<b>II.16: Public Sector Debt Database (PSDS)*</b>
<b>I.19: Real Estate Prices</b> ●	<b>II.17: Residential Property Prices (RPPI)</b>
<b>Communication of Official Statistics</b>	<b>II.18: Commercial Property Prices (CPPI)</b>
<b>I.20: Principal Global Indicators</b> ●	<b>Communication of Official Statistics</b>
	<b>II.19: International Data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b>
	<b>II.20: Promotion of Data Sharing</b>

● Recommendations that are completed based on the targets that were introduced in 2014.  
 ● Recommendations where significant progress was made and are close to completion pending participation by all G-20.  
 ● Recommendations where progress was slow.  
 \* Indicates priority areas identified by the G-20 economi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2015.

[그림 2] DGI 2단계 사업을 위한 국제기구 역할분담 현황

<b>Recommendation II.1: Mandate of the DGI</b>	IAG (IMF*/FSB*)
<b>Recommendation II.2: FSIs</b>	IMF*
<b>Recommendation II.3: CDM</b>	IMF*
<b>Recommendation II.4: G-SIFIs</b>	FSB* (IMF)
<b>Recommendation II.5 Shadow Banking</b>	FSB* (OECD)
<b>Recommendation II.6 Derivatives</b>	BIS*, FSB*
<b>Recommendation II.7 Securities Statistics</b>	BIS*, ECB* (WGSDB)
<b>Recommendation II.8: Sectoral accounts</b>	IMF* and OECD* (IAG and ISWGNA)
<b>Recommendation II.9: Household Distr. Inf.</b>	OECD* (Eurostat, ECB)-IAG
<b>Recommendation II.10: IIP</b>	IMF*
<b>Recommendation II.11: IBS</b>	BIS*
<b>Recommendation II.12: CPIS</b>	IMF*
<b>Recommendation II.13: CDIS</b>	IMF*
<b>Recommendation II.14: Cross border exposures of non-bank corporations</b>	BIS*, IMF*, OECD*
<b>Recommendation II.15: GFS</b>	IMF*
<b>Recommendation II.16: PSDS</b>	World Bank* (IMF, OECD, BIS)
<b>Recommendation II.17: Residential Property Prices</b>	IWGPS* (IAG)
<b>Recommendation II.18: Commercial Property Prices</b>	IWGPS* (IAG)
<b>Recommendation II.19: International Data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b>	IMF*, Eurostat*
<b>Recommendation II.20: Promotion of Data Sharing</b>	IMF*, Eurostat*

- IMF 대표는 WPFS회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은 채권채무관계



## 2.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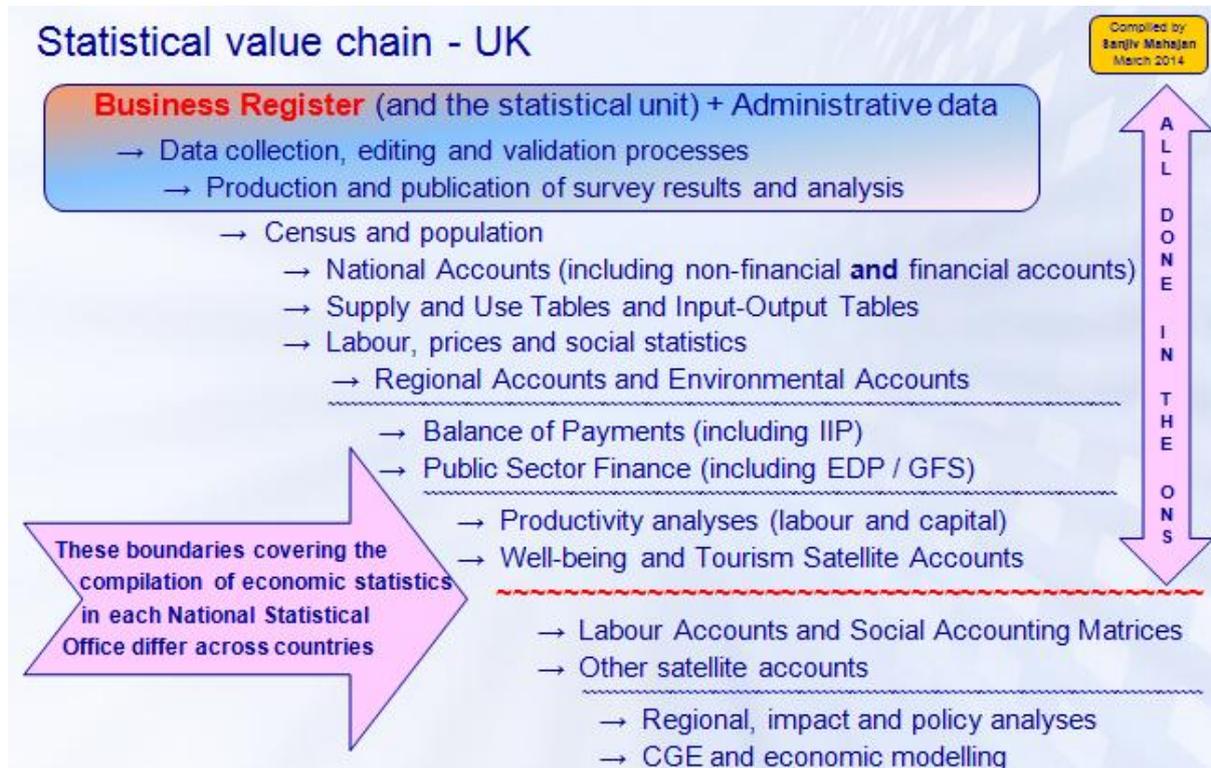
□ (논의배경) 국민계정과 금융통계간 정합성, 미·거시 통계간의 연계, 통계 단위,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 측정 관련 이슈 등에 대해 토론 발표

□ (국민계정과 금융통계간 정합성)

○ (영국) 공급사용표 및 투입산출표 등을 이용하여 도출된 국민계정 통계와 국제수지를 비롯한 여타 금융통계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자국의 통합 프로세스를 소개

- 1989년 이후 단일기관(영국 통계청)에서 국민계정 및 국제수지통계 등을 편제 및 공표함에 따라 통계간의 정합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었음을 강조

[그림 4] 영국통계청의 통계작성 영역



○ (ECB) 유로지역 국가들의 국민계정과 국제수지통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 발표

-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SNA2008과 국제수지통계 작성기준인 BPM6간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로국가들은 양 통계간 상당한 불일치

- 유로국가의 국민계정과 국제수지통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T/F가 활

동 중에 있으며, 동 업무의 최종보고서를 2017년 2월경 ESCB에 제출

□ (미·거시 통계간의 연계)

- (OECD) EG DNA(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National Accounts) 활동 및 미·거시 통계간 차이(micro-macro gaps) 발생 원인 발표
  - EG DNA는 가계 그룹별 소득, 소비 및 저축에 대한 배분결과를 국민계정 개념과 일치하도록 방법을 개발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
  - 주요 미·거시 자료의 차이 발생 원인으로 국민계정 총합의 품질, 개념과 분류차이에 대한 가정, 지하경제 또는 불법 생산활동에 대한 조정, 미시 자료의 추정오차, 미시자료의 관측오차 등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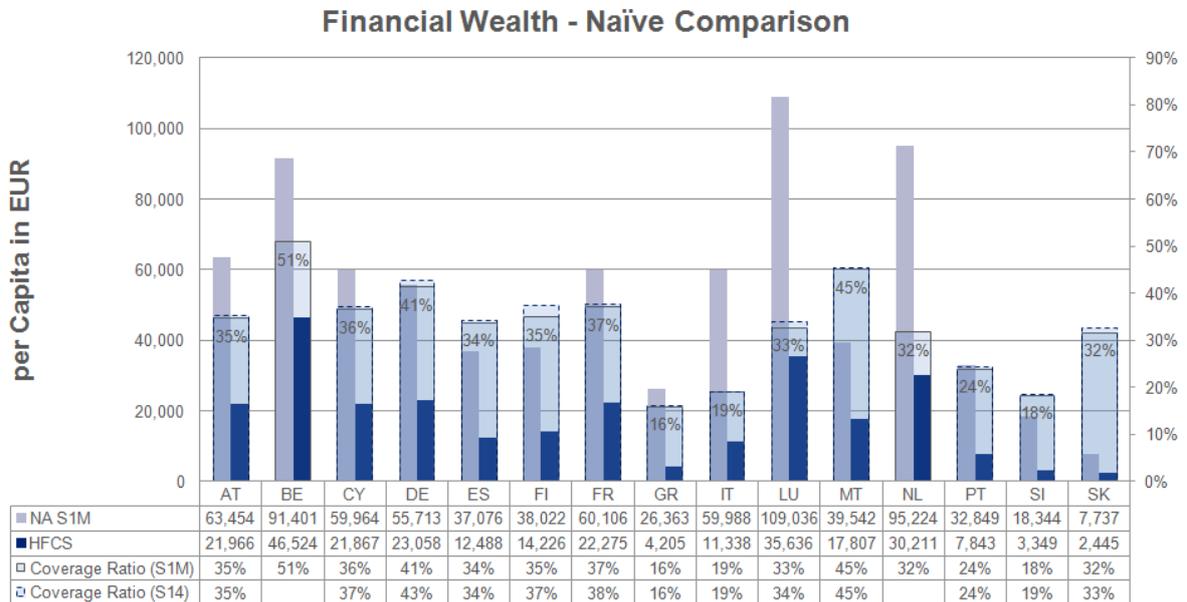
[그림 5] 미·거시 통계 연계 프레임워크 예

<i>Item xx.</i>		<i>Estimates</i>					
<b>I</b>	National account total (A)	...					
	- Adjustment for NPISH (B1)	...					
	- Adjustment for non-private households (B2)	...					
	- Adjustment for expenditures of non-resident households on the territory (B3)	...					
	= Adjusted NA total (C=A-B1-B2-B3)	...					
			<b>Q1</b>	<b>Q2</b>	<b>Q3</b>	<b>Q4</b>	<b>Q5</b>
<b>II</b>	Micro total (D)	...	...	...	...	...	
	= Macro-Micro gap (E=C-D)	...					
<b>III</b>	Conceptual or classification issues (F)	...	...	...	...	...	
	Underground and illegal activities (G)	...	...	...	...	...	
	Other elements missing in micro data (H)	...	...	...	...	...	
	Estimation errors (under-/overcoverage) (I)	...	...	...	...	...	
	Measurement errors (under-/overreporting) (J)	...	...	...	...	...	
	Reasons n.e.c. (K)	...	...	...	...	...	
	= Remaining gap (L=E-F-G-H-I-J-K)	...	...	...	...	...	
	<b>TOTAL (=D+F+G+H+I+J+K+L)</b>	...	...	...	...	...	

- (캐나다) 국세청 및 기업등록부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자국의 사례 발표
  - 법인세(T2, corporate income tax), 근로소득 명세서(T4, statement of remuneration paid), 고용관련 기업신고내역(PD7) 등 국세청 자료와 기업등록부(business register) 이용
  - 지역 공급사용료 및 산업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별, 산업별로 배분하고 이를 미시분야 연구에 적극 활용

- 확장 공급사용표(extended SUT) 작성은 중간투입, 부가가치, 수출, 수입 등의 강도(intensities)를 기업 특성별로 파악가능하며 이를 위해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 중
- (ECB) 유로국가의 미시 및 거시 통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그룹의 활동 내용 소개
  - 동 전문가그룹은 2015년말 ECB 산하 통계위원회 논의 결과 발족되었으며,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무 회의를 진행한 바 있음
  -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각국의 미거시통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ECB측에서 의장과 secretariat을, Eurostat과 OECD에서는 observer 역할을 담당
  - 분석 대상 통계로는 가계금융 및 소비 조사(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s)이며, 첫 단계는 양 통계간의 불일치 현황을 파악

[그림 5] 국가별 금융통계-조사통계 간 미거시 통계 불일치 비교



- 향후 2017년 1~2/4분기중 ECB 통계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후, 동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할 예정

□ (통계단위)

- (OECD) 국가별 통계단위(statistical unit) 적용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 발표

- 동 조사는 ISWGNA(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및 AEG(Advisory Expert Group)에서 각국의 국민계정 편제시 적용하고 있는 통계단위를 파악하기 위함
  - 지난 2016년 9월 OECD는 본회의(OECD WPFS/WPNA) 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32개국이 응답하였음
  - 조사 결과, 공급사용표에서는 사업장(establishment)과 활동종류별 단위(kind-of activity unit)가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부문별 계정에서는 기업(enterprise)과 법인(regal unit) 단위가 가장 많이 적용
    - \* 지역계정에서는 대체로 사업장 기준으로 통계단위가 적용되고 있음
  - 이는 2008 SNA 권고사항에 대체로 부합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상이한 통계단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 국가 계정내에서도 복수의 통계단위가 혼합 적용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OECD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국민계정뿐만 아니라 기업통계 실무자의 의견도 함께 모아 일관된 통계단위에 대한 기준방안 도출 필요
- (캐나다) 상이한 통계단위(사업체, 법인, 기업체 등) 적용시 산업별 지역별로 총매출액(total revenues)과 영업이익(non-financial operating surplus)의 변화를 비교분석
- 분석결과, 자국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편제 단위에서는 기업단위(enterprise level) 적용이 이용성, 접근성 및 비용성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임
  - 다만, 지역을 고려할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업장 단위가 더 적합함
- (커뮤니케이션)
- (한국)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민계정 공표원칙과 실제 공표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언론 환경의 특징, 반응 및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발표

- 각국 대표들은 국민계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국내외 언론환경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 운영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
- 특히,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언론대응 사례도 언급하면서 언론 대응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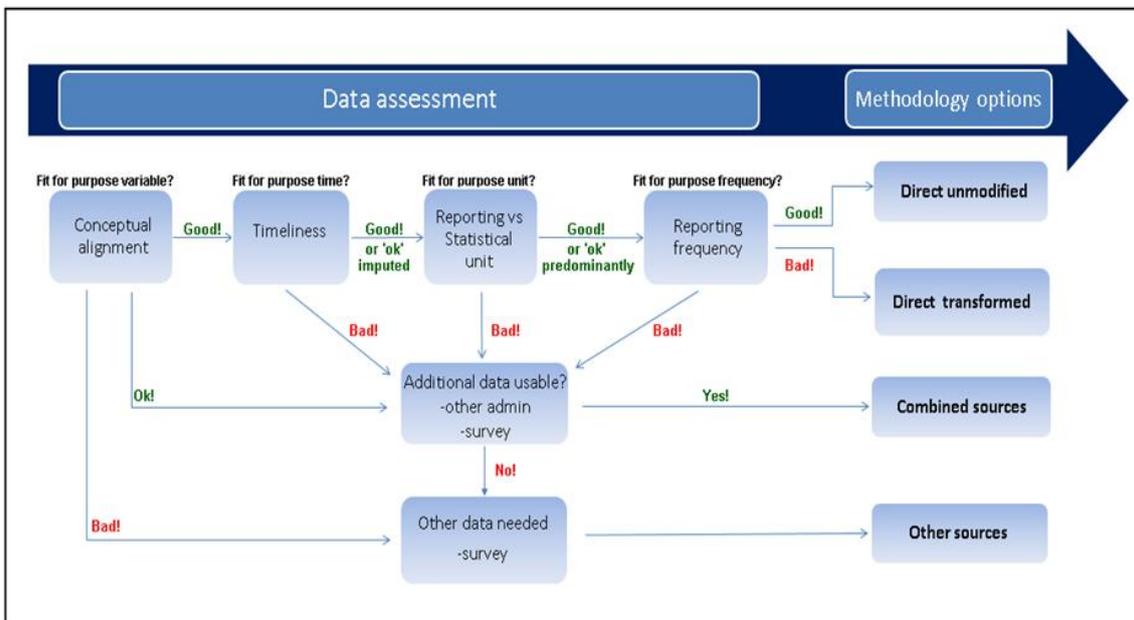
#### □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

- (노르웨이) 1989통계법 제정 이후 등록기반 통계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 간 자료처리 및 통계생산 방법 등에 대해 발표
  - 주로 기업등록부(Central Coordinating Register for Legal Entities), 인구등록부(Central Population Register) 및 토지대장(cadastre)이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역할을 하며, 개인식별번호(PIN), 기업식별번호(BIN), 주소 등이 연계항목으로 이용
  - 2002년부터 금융거래장부가 경제구조통계(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작성에 적용, 2003년부터 부가가치세 등록부가 분기별 매출액 통계에 적용되고 있음
  - 2015년부터, 복지행정부(The Norwegian Welfare Administration), 국세청(The Tax Administration), 통계청(Statistics Norway)의 3개 기관 등이 협력하여 “A-ordning” 연계망을 구축하여 매달 1회 지급된 임금, 연금 및 기타수당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아울러,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등록기반 자료가 생성될 초기 단계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핀란드) 행정자료를 포함한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하고 있는 자국 사례를 발표
  - 비용측면에서의 효율성, 조사응답자의 부담완화, 다양한 포괄범위, 비교적 높은 적시성 등이 장점으로 보이나, 행정자료와 통계간 항목의 포괄범위 차이, GDP속보에 비해 자료가 늦게 확보되는 점, 잦은 revision 등이 보다 광범위한 자료 활용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 통계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자료를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한 방안도 꾀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자료를 보다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기법 등 방법론 연구 수행 중에 있음

- (뉴질랜드) 통계생산에 있어 통계조사를 최소화하고 행정자료를 전면적으로 이용한 새로운 통계작성체계로의 변환을 꾀하는 자국 사례를 발표
  - 동 작성체계는 제조업 및 도소매조사의 응답부담을 50% 경감시키고, 통계품질 개선, 통계생산의 유연화(예, 세분화), 다양한 통계생산의 증대,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등을 장점을 지님
  - 또한 행정자료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통계생산시 행정자료의 가용성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함

[그림 6] 행정자료 이용을 통한 통계생산 가능성 판단 평가 예시



- (포르투갈) 자국의 금융계정 통계 작성을 위한 DB의 종류 및 활용현황에 대해 발표
  -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부, 통계청 등과 협력하여 개인 신용자료, 기업 재무상대표 데이터베이스, 채권통계 및 국제수지통계 DB 시스템 등을 경제주체별로 세분화하여 구축
  - 동 DB로 작성된 자금순환통계 및 상세자금순환통계를 이용하여 비금융 부문의 부채 및 경제주체별 금융연계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 실시
- (칠레) 조세자료를 활용한 자국의 국민계정 편제 시스템 소개
  - 부가가치세, 소득세, 임금, 부동산 소유현황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미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강조

- 다만, 조세자료는 고소득층 소득 누락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료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부연
- (측정 관련 이슈) 실질지표로 환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디플레이션 적용의 권고 피력
- (IMF)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8개국을 대상으로 디플레이션 방식 관련 사례연구 결과를 발표
  - \* 한국,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미국
  - 이중 디플레이션(double deflation)은 최근의 중간투입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우수하나, 현실적인 적용의 한계 언급
  - IMF대표는 8개국을 대상으로 이중 디플레이션과 단일 디플레이션 적용시 총부가가치를 시현해 본 결과, 단일 디플레이션을 적용할 경우 편이(bias)가 발생하며 이는 GDP의 과소 또는 과대 추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
  - 이에 따라 동 대표는 현재 단일 디플레이션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단일 외삽(single extrapolation)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중 디플레이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한국) 우리나라 분기 소득계정 시산현황에 대해 발표
  - 분기 소득계정 시산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기초자료 현황 및 세부 항목별 방법론을 설명

### 3.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WPNA)

- (논의배경) 최근의 아일랜드 국민계정, 디지털경제, 패널토론, 국민계정 재설계 등에 대해 발표
- (최근의 아일랜드 국민계정) 아일랜드 대표는 자국의 2015년 실질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주요 요인과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
- (아일랜드) 2015년 아일랜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439억 유로로 전년대비 26.3% 증가하였으며, 이는 직전 추정치 7.8%에서 대폭 상향 수정

- 동 대표는 아일랜드가 기본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전한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증대된 지적재산이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 반영된 과정 설명
- 이 결과 아일랜드의 수출액이 크게 늘고 부가가치 항목인 고정자본소모와 영업잉여가 큰 폭 증가
- 각국 대표들은 아일랜드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아일랜드 실물경제 흐름 및 변화를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으며,
- 해외생산(global manufacturing) 처리문제, 경제적 소유권 개념 재설정, 지적재산권 자산 처리문제, GDP의 대체지표로서의 NDP 활용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 진행

#### □ (디지털경제)

- (OECD)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경제의 대표적 사례들(에어비엔비, 우버 등)에 대한 GDP 통계의 측정관련 이슈 및 회원국들의 사례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
  - GDP 통계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는 디지털경제하에 발생하는 거래들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개념적으로는 견고(robust)하다고 평가
  - 다만 GDP통계의 측정과 관련하여 공유경제를 통한 가계의 생산활동은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확한 가격 및 물량(price and volume) 측정은 이전보다 어려워져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회원국들의 디지털경제 측정 사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나라들이 기초자료의 제약 등으로 일부 디지털경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캐나다) 최근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에서 우버, 에어비엔비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지출관련 항목을 추가한 시험조사에 대해 발표
  - 동 조사결과를 GDP통계에 당분간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공유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초자료 및 추계방법을 개발할 계획
- (미국) 디지털경제를 측정하고 경제성장에서 기술(technology)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 착수한 디지털 위성계정에 대해 발표

- 동 위성계정 개발을 위해 디지털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변화를 반영한 물가지수 개선, 공유경제의 포착, Google 및 Youtube와 같은 무료 디지털 서비스 평가 등의 작업이 이루어 질 것임

○ (Eurostat) 유럽통계청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와 이를 포착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충방안에 대해 발표

- 공유경제는 비공식적이며 소액거래가 많아 전통적인 사업체 또는 가계 조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직접자료를 얻는 것이 효율적
- 그러나 중개서비스업자들이 다국적기업인 경우가 많아 각 통계기관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얻는다면 응답자의 부담과 비용, 자료보안의 문제 등이 발생
- 통계작성기관간 국제적 공조를 통해 집중화된 기초자료 입수방안 (centralized data collection)을 구축할 필요

□ (패널토론) 디지털경제가 GDP통계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장단 위원들을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짐

○ (OECD) 국가별 통계단위(statistical unit) 적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 아국 대표단장인 김영태부장은 최근 GDP통계의 과소추정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GDP통계의 포괄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미포착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또한 새로운 경제현상을 반영하는데 있어 시장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래들은 국민계정체계에서 포착하되 그 이상의 범위인 소비자후생 등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위성계정을 개발하는 이원화된 접근법(two tracks approach)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이는 2008 SNA 권고사항에 대체로 부합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상이한 통계단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 국가 계정내에서도 복수의 통계 단위가 혼합적용되고 있는 상황

- 토론자들은 디지털경제를 SNA 체계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경제의 측정과 관련한 연구를 공유,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용어의 통일, 동 경제활동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를 체계화, 디지털 경제를 포착하기 위해 기초자료 보유기관 및 통계작성기관과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국민계정의 재설계)

○ (영국) 최근 국민계정 작성의 재개발(Re-developing)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

- 전년물가(PYP)를 적용한 공급사용표 및 자금순환표 작성, 행정자료의 탐구 등에 새롭게 우선순위를 부여
-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고차원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작성체계 마련을 큰 도약과제로 구상 중에 있으며 관련 의견 피력함

[그림 7] 기본 통계생산체계(안) 제시

